

조직논문

## 신비의 방식으로 진리와 사랑의 조화

### Reconciling Truth and Love—Modes of Mystery

조오지 밴더벨트 (캐나다, 토론토신학교 교수, 조직, Th.D.)

George Vandervelde (Canada, Professor, Toronto School of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Th.D.)

번역: 안 명준 (평택대학교 조교수, 조직, Ph.D.)

Translator: Ahn, Myung-Jun (Assistant Professor, Pyongtaek  
University, Systematic Theology, Ph.D.)

#### I. 세상과 교회에서 진리에 대한 서약

과거에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진리는 질문 안에 놓여 있다. 진리는 여러 방향에서 도전 받고 있다. 첫 번째, 종교 다원주의가 진리 문제를 제기한다. 어느 정도 이것은 항상 그래 왔다. 나는 십대였을 때 내가 만일 인도와 같은 먼 곳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힌두인이 되었을 것이고, 힌두교가 진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했었다. 몇 주 전에, 나는 비행기 옆자리 승객과 대화를 하였다. 그녀는 가톨릭교회 가정 안에 자랐는데,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려운 생각에 휩싸여 있었는데 그것은 한 공동체가 자신의 종교는 진리이나 다른 모든 종교는 틀렸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다. "만일 내가 이란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아마도 회교도가 되었을 것이고, 기독교는 틀렸다고 선언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종교라는 개념만으로는 정당하지 않다. 오늘날, 말하자면, 아주 먼 장소는 옆문으로 이동하였다. 우리는 다원주의 상황 안에 살고 있다. 대부분의 우리 사회들은 즉 우리 공동체들은 종교적 다원주의자이다. 사람이 섬처럼 고립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는 섬처럼 고립되지 않는다. 다원주의 상황은 쉽게 다원주의 세계관으로 인도한다. 그와 같은 관점은 전망은 어떤 1개의 종교에 따른 진리의 확실성을 포기하고 모든 종교의 종합을 통하여 여러 종류의 진리를 발견하거나 혹은 진리의 개념을 모두가 포기한다. 하지만 우리는 순수 관계 주관 방식(a purely relativistic subjectivistic mode)으로 이동한다.

얼마 전 또 다른 비행기에서 나는 나 옆자리에 앉은 어떤 여성과 대화를 다시 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주장하였다. 나는 그녀의 이런 솔직한 고백에 크게 감사를 말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심지어 자신의 고백이나 삶에 어떤 명확한 만족을 발견하기가 힘들어도 자신들이 기독교인으로 밝힌다. 종종 그들은 자신들이 좋은 사람으로 단순하게 생각한다. 어쨌든 나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예의 있게 대답하기를, "당신은 당신의 진리를 가졌고, 나는 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서로에게 친절하고, 우리의 진리들에 관하여 친절한 교환을 갖도록 합시다."라고 했다.

진리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들 가운데 하나는 다른 종교들은 어떤 근본적인 점에서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만한 것으로 여기는 두려움에서 먼저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종교적으로 적재된 폭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것에 주된 도전을 주고 있다. 과거나 현재에 기독교인과 무슬림 사이에 폭력적 충돌의 슬픈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무슬림과 기독교인, 힌두교인과 기독교인, 무슬림과 힌두교인들 사이에 충돌이 배타적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재앙이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논지에 풍부한 내용을 제공한다. 며칠 전 내 이웃에 사는 이란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보통의 무슬림이었다. 그는 주장하기를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논쟁과 충돌이며, 최악에 폭력으로 이끈다고 한다. 폭력 증후군이 그로 하여금 모든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게 하였다. 이런 입장의 뒤의 논리는 논쟁의 여지가 없게 보인다. 종교들 가운데 기본적 차이점을 취하는 것은 폭력을 자초하게 되어 있다. 폭력은 대부분 세계 종교들의 전체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던 간에 차이점은 기초가

될 수 없다.

종교적으로 빚어진 충돌이 진리 주장을 제기한다라는 도전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서구의 세속화는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기인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 문화적인 한 쌍은 세속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서구의 세속화는 다른 전통들에 속한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는 유럽에서 종교 전쟁의 체험에 의하여 조금한 부분도 양육되지 않았다. 만일 종교적 진리의 주장이 그런 폭력과 파괴를 야기한다며, 종교 자체는 개인 영혼의 지성소에서 추방되어야 하며 퇴거되어야 하며, 공적인 삶에서 난폭한 것들과 파괴적인 것들을 차단되어야 한다.

다원주의, 과학과 기술, 그리고 종교적 충돌의 영향에 더하여 현대 철학과 세계관은 진리에 대하여 강력한 도전을 제기하는데, 곧 포스트모더니즘이다. 그것은 보편적이며 포괄적 진리에 대하여 모든 주장들을 말한다. 그런 주장들은 지배와 통제에 대하여 개별 그룹의 요구를 제기한다. 진리에 대한 주장은 권력의 위장된 확신으로 본다.

더욱, 진실의 모든 표현은 특별하게 상징적인 체계 안에서 표현된 것처럼 문맥과 문화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기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초월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해 진리를 말하는 시도는 자기 자신의 피부를 벗기려는 시도이며, 세상 신의 관점을 나타내는 시도이다.

진리에 대해 서약하는 것은 오늘날 단순히 세상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해명하는 것은 기독교 교회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더욱, 복음주의 공동체는 면역성이 없다. 십 여전에 David Wells는 No Place for Truth(진리를 위한 장소는 없다)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흥미롭게도 진리를 포기하기 위하여 그가 선택한 장소는 우리가 기대되는 우리의 현대 세계가 아니며, 심지어 특별하게 서구 세계도 아니다. 그는 복음주의 세계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도전을 걱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타이틀 다음과 같이 읽게 되는데, No Place for Truth, or Whatever Happened to Evangelical Theology? (진리를 위한 장소는 없다, 아니면 도대체 복음주의 신학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의심의 여지없이 복음주의 공동체는 진리에 대하여 심하게 공격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한 선교 진술서 안에 있는 한 항목을 보자. 회중의 임무와 비전을 말한 후에, 그 문서는 가치들의 항목을 선언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존중한다. 우리는 "리더십을 존중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존중한다."라는 항목 이외에 다음의 진술

을 발견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굴복하기를 존중한다"이다. 이 진술은 보수적, 복음주의 회중의 선교 진술서에 있는 것이다. 개별 공동체가 소중히 사람을 간직한다라는 존중에 대한 선교적 진술서를 말하는 것은 반대할 것이 못된다. 그런 진술서는 참된 믿음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으며, 복음의 진리를 응답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존중이 사람들의 매일의 삶을 이끌도록 분명하게 한다. 그런데 이런 진술서가 소위 말하는 가치의 본질을- 우리가 고백하는 진리에 비추어 우리 문화의 구체적인 관점들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분명하게 밝혀주지 못할 때에 문제들이 시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급한 진술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고백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진술 안에 흡수되어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굴복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많은 가치가 있다. 사실 이런 고백은 우리의 전적인 삶을 재평가 하도록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되심에 굴복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거나 여기지 않는 그런 것도 그런 가치도 아니다. 모든 생명의 주님으로 예수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의 가치가 아니며, 심지어 많은 가치들 가운데 가장 높은 가치도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도록 부르심에 대면시키는 것은 바로 진리이다.

## II. 신비의 방식으로 진리와 사랑

### A. 신비: 보상, 도피, 그리고 진리의 고향

비난 속에 있는 진리의 문맥에서 신비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는 것은 의심적이며, 이런 이유는 이해를 추구하는 이성 때문이다. 신비에 호소하는 것은 참혹한 진리의 싸움터로부터 하나의 도피로 보여진다. 이성적 담론과 논쟁터에서 기독교 믿음의

진리를 방어할 수 없어서 우리는 전략적 후퇴를 한다. "우리는 신비라는 카드를 뽑아 낸다." 신비라는 말은 인간 이성의 인식을 넘어 어떤 것이 작동하고 그럴 듯한 곳인 애매한 영역을 불러낸다. 나의 언어처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이 모두이다. 동의어로는 비밀, 막연함, 모호함, 애매함, 애매모호함."과 같은 것들이 있다. 여기 나열한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신비란 우리의 보통 세계 넘어 있는 세계, 종교와 영의 세계

라고 언급된다. 신비는 도피소가 되며, 내부자들에게만 열려 있다. 신비는 문을 가지고 있어서 오직 배타적 종교 클럽회원들이나 영성에 헌신된 자, 특별한 수도승의 추종자들에게 지나갈 수 있다. 신비는 영지주의자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었고, 심지어 기독교에도 그렇게 되었다. 전투와 관련하여 전략적 후퇴는 패배를 완곡하게 표현이 되었다.

신비에 대한 개념은 그것이 단지 이성적 진리로부터 도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을 받은 것만이 아니다. 신비는 또한 일종의 대위법처럼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이성의 두뇌적 영역을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믿음 안에 있는 합리성의 적절하며 기본적인 역할을 확신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합리성 이상으로 또 진리의 진술이상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복음의 진리를 체험하는 것이 있다.

계시는 우리를 또 다른 세계 즉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세계로 데려간다. 이 영역은 교리와 교의의 세계를 초월하고, 분명한 주장의 영역을 초월한다. 그 세계는 말로서 통하지 않는 세계이다. 그것이 바로 신비의 영역이다.

사람들이 이성적 진리를 떠나 신비를 불러내든 아니면 그런 진리를 확신하던, 신비를 두 번째로 높은 곳에 두던 진리를 탐구하는 맥락에서는 신비의 역할을 막는 위험은 아주 실재적이다. 진리는 부 절적하게 되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신비를 향해 발사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격언에도 있듯이 남용은 적절한 사용을 못하게 한다. 결국 신비에 대한 개념은 성경적 작품들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신비에 대한 개념이 갖는 용어들을 알아야 하는데, 특별히 진리와 관련해서 그렇다. 그러나 성경 자료를 즉시 다루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첫째로 다소 일화적이며 현상학적으로 신비에 대한 개념을 다루기를 원한다.

## B. 생명의 자료로서 신비

내가 8살이나 9살 이었을 때, 이상한 문제가 나를 혼돈시켰다. 나는 어느 날 나의 친구 로엘리와 함께 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궁금중이 나를 덮어버렸다: 만약에 나의 아버지가 로엘리의 어머니와 결혼한다면, 로엘리는 그대로 로엘리이고 나는 그대로 기트인 것일까? 만약에 아니라면, 나는 다른 점을 알 수 있나? 그리고 . . . 우리는 그래도 친구일까? (나는 미리 예견해 그 질문에 대해 영화 각본을 썼으면 좋

았을 것이다. 나는 그 영화를 "백 투더 퓨처"라고 불렀으면 좋았을 것이다.

몇 년 후에, 나의 어린 영혼에 다른 질문이 차지했다. 나는 마침 그 당시 어떤 곤충들은 24시간 동안만 산다는 것을 알았을 때였다. 그 사실은 나에게 겁을 주었다. 나는 작은 파리를 보고 생각했었다: 이제, 만약 파리가 아침 8시에 태어났다면, 11시면 나의 나이 만할 것이고, 3시면 어른이 되어있을 것이다. 4시가 되면 파리는 여자친구를 구하겠지, 그 후에 결혼 할 것이고 아이를 낳겠지--아니면 아기들을 위해 달걀 껍질 요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후에 장례식을 치를 시간이다! 이 생물학적 시계는, 과열 상태로 똑딱거리고 있었으며, 나를 재촉하여 그 곤충에 삶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들었다. 나는 알고 싶었다,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그렇게 짧게 순환을 이루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얼마 후에 나는 나의 상상 속에 두 행복한 결혼의 대한 의미를 알았다.--그러고 보니 그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보 없이 생각된 것이었다. 질문에 대한 의문점은 이러했다: 나를 이루는 것들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우정은 좋은 것인가? 나는 인간 주체성과 가족의 신비에 대한 궁금증으로 비틀거리고 있었다. 두 번째 질문은 밤과 낮 사이 동안만 나르는 것에 대한 더욱 어려운 질문 이었다: 삶의 의미에 대한 수수께끼였다. 그 불쌍한 파리는 삶과 죽음에 관한 그리고 역사와 운명에 관한 질문들을 미세하게 상영하는 것 같았다.

어떤 면에서 이 두 수수께끼는 나 스스로에게 관련이 있는 것 같으며, 나를 회전하면서 돌았다. 나는 안심한 상태로, 세 번째 말은, 보다 더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지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내가 한 10살 쯤 되었을 때 나의 제일 친한 친구는 트린지라는 여자 아이였다. 그녀는 배에서 살았다. 그녀의 배는 종종 우리 집 가까이에 있는 드라이독에 안착 하였다. 나는 어느 날 그녀의 배에서 하룻밤동안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드디어 잘 시간이 왔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잤다--그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일 이었다 그 배에서 손님을 재울 방이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주요한 기억은 내가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뿐 이었다. 트린지는 호기심 분위기로 덮여 있는 듯 보였다. 그녀는 여자였지만, 친숙한, 나의 친구였다. 나는 나의 친구에게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매력은 성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었다. 내가 만약 그녀를 만졌다면, 무슨 일이 벌어 졌을 지는 아무도 모르고, 또한 그 신비함은 없어졌을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그 이상한 분위기가 신비감을 증폭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신비감은 이성에 관한 신비감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 때 어른스러웠다면 학교에서 집으로 올 때 수로 옆에 앉아서 메모용지에다가 펜으로 이성에 대한 느낌을 수필로 썼을 것이다-- 그리고 매우 유명해 졌을 지도 모른다.

이 작은 스케치로 신비와 수수께끼 사이에 여정을 통해서 또다시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왜 그 신비함은 이제 혼돈이 감소되는 것일까? 이 융합에 대한 아주 당연한 해답은 이렇다. 신비, 수수께끼, 난문 같은 용어들은 서로 바뀌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수수께끼 소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고유 언어로는 "추리소설"이다. 독자가 누가 일을 저질렀는지 알았을 때에 수수께끼는 끝이 난다.

다른 연관되는 예로는, 어떤 사람의 얼굴을 상상해 보아라. 만약 당신이 그 사람과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불확실한 얼굴일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논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애매한 사람은 누구지?" 이렇듯이 애매함은 단순히 수수께끼인 것이다. 당신이 비로소 그 상상한 얼굴이 누구인지 알아냈을 때에 그 궁금증은 증발되는 것이다. 그 시점에 "궁금증"은 "획"하고 살아진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당신이 상상한 사람의 신비함은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것은 수수께끼나 난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의 얼굴은 표출된 인간의 신비함, 특별히 눈에 띄게 하는 신비함은 식별 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깊이를 알 수 는 없을 것이다.

신비를 푸는 방법은 융해시키는 것이다. 신비는 하나의 문제로서 반대적으로 놓여 있지 않다. 신비는 우리 뒤에, 전에, 그리고 둘러싸고 있으며, 그것은 마치 사랑의 목소리처럼 우리를 부른다. 신비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 그것은 삶의 조건이다. 신비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껴안고 있다 신비는 우리의 생활권이며, 인생이 호흡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비는, 모든 인간 사고가 가능한 상태(a fortiori)이다.

수수께끼가 신비를 삼키려는 이유는 둘 다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까지의 관계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둘의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훨씬 크다. 수수께끼와 난문이 모르는 것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난문의 목적은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뿐이다. 물론 어떤 수수께끼는 본질적으로 영원히 안 풀릴 수도 있다. 수수께끼의 신학적인 예문으로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질문이 있다: "하나님은 자신조차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을까?"<sup>1)</sup> 이럴 땐 신비가 모르는 것의 동의어가 된다, 마치 평범한 진술 같

이 "그것은 나에게서는 불가사의해!"라고 한다.

신비가 수수께끼나 난문으로 축소될 때, 신비는 지식의 대립되는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신비가 매마른 형태로 지식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지식이 수척한 신비를 정복하던지 한다. 대조적으로 참된 신비는 지식과 함수적으로 커진다. "지식이 클수록, 신비는 더욱 깊어진다".<sup>2)</sup> 이런 점에서 신비가 미지에 대한 인식을 수수께끼와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신비는 알려진 것과 결정적으로 다른 관계에 있다. 우리가 신비를 인간에게 참조해 말을 할 때에, 신비는 단지 밝혀지지 않는 사실 즉  $x$ 만을 대표 하는 것도 아니며 사람을 모르는 것처럼 그 사람 에 대해 모르는 것을 물음표로 새기는 것도 아니다. 이 신비는 알려져 있다. 그것은 독특한 인생에 포함되어 있다. 이 신비는 얼굴을 통해 나타나며, 비록 결코 획득되지 않지만, "에스터", "나오미", "갈렙", "레위" 같은 이름들을 임의로 골라서 이름에 의하여 불러일으킨다. 이 이름들은 성스런 역사 속에서 유명한 이름들이지만 우리 가운데서 또한 응답한다.

지식의 정도(혹은 무지)와 관련하여 수수께끼와 신비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피상적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각각에 반응하는 지식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다. 퍼즐이나 수수께끼에 첫 번째 반응은 지적인 당혹함이며, 이마를 찌푸리며 물리적으로 반응하는 표현과 더불어 정신을 놀라게 한다. 더군다나 수수께끼를 아는 목적은 정복이다. 신비에 해당하는 지식과는 아주 다르다. 정신과 마음의 명확한 상태는 신비로 접근하는 특징이다. 신비에 상응하는 반응은 놀라움과 경외이다. 신비에 대한 사람들의 우선적 반응은 정신적 경련이나 혹은 지적인 갈망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반응하는 물리적 표현은 이마살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경외감이

---

1) An example in the political realm is a statement that seems designed as an impenetrable puzzle. Consider this response by Defense Secretary Donald Rumsfeld to the question as to what was known about Iraqi'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s we know, there are known knowns; there are things we know we know. We also know there are known unknowns; that is to say we know there are some things we do not know. But there are also unknown unknownsthe ones we don't know we don't know." (From a Department of Defense news briefing, February 12, 2002). Although this sounds like bafflegab, Rumsfeld explained that he did not intend this statement as a riddle but wished to make the serious point, namely, that "the absence of evidence is not evidence of absence."

2) Edward. O. Wilson, *Biophili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0.

다. 인간의 깊은 곳에서 전율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전율은 성경이 마음이라고 묘사한 곳에서 솟아 나온다. 마음은 단순히 느낌이라는 감정적 기능이 아니라, 성경이 인간 내면에 중심으로 묘사한 내적 실재이다. 신비에 대한 반응은 내면에서 나오는 자국어(語)를 사용하여 진동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는 목적은 신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신비를 정복하는 것은 모순이다. 대신 사람은 신비에 의해 감싸인 면을 가지며, 신비 안에 살며, 자신의 고향으로 신비를 안다. 신비는 드러나고, 퍼즐의 이해력과 아주 구별된 이해력을 수반한다. 퍼즐이나 수수께끼는 가까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요하고, 이해의 종지부를 찍도록 애태운다. 신비는 이해(understanding), 즉 사람이 아는 것 아래에 그리고 함께 서있는 것을 포함하는 지식을 일으킨다.

### C. 드러난 신비

신비는 풍부하게 성경 안에서 중심을 차지한다. 계시된 것은 바로 신비이다. 신비는 알려지고, 신비는 설교되고, 가르쳐지고, 찬양되어진다. 비록 이 신비가 이해된다는 의미에서는 철저하게 알려질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비는 알려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sup>3)</sup> 이 신비는 "열린 비밀" - Lesslie Newbigin의 책에서 빌려온 - 이다.<sup>4)</sup> 성경에서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 주제로서 화해의 웅장한 드라마로 언급된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땅에서 이 신비는 정신과 마음 그리고 눈과 손에 의하여 알려진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요일 1:10)." 여기서 우리는 신비의 얼굴과, 하나님의 특성과 임재와 이 세상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한 목적들을 표현한 인간의 얼굴을 희미하게 본다. 바울은 복음의 신비를 말한다. 즉 드러난 신비를 말한다. 그는 신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라고 불렀다. 그것은 인격적인 성공이요, 인내의 놀라움이며, 사랑을 통과한 것이다. 심지어 바울은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말한다.(엡

3) G.C. Berkouwer contrasts the biblical notion of mystery to a "general" or "formal" concept of mystery, which signifies nothing other than that it surpasses our understanding. Mystery is then reduced to a vague designation for the "super-rational or the irrational." See *The Person of Christ* (Grand Rapids: Eerdmans, 19xx), 329-32.

4) *The Open Secret* (Grand Rapids: Eerdmans, 1978).

3:4, 6:19; 골 1:27; 2:2; 4:3). 다른 말로 신비는- 상처를 받았지만 - 우리의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여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신비는 숨은 마음속에서 아니면 영적 영역의 은둔 속에서 감싸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신비는 이 세상에서 하나의 주소를 갖고 있으며, 그 주소가 화해된 그리고 화해하는 공동체이다. 남녀, 노소, 모든 종족들로 구성된 이 새로운 공동체는 만물의 우주적 화해 진열장이 되어야 한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새로운 피조물이 결정체가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위대한 평화로운 계획이 실현되는 원초석이 되어야 한다(엡 1:9-10; 3:5-6). 요약하면 신비는 그 자체가 생명이다. 그것은 우리의 생물권이다. 우리는 그 안에 살며, 거동하며, 존재한다. 생명이란 창조주와 구속주와 관계에서 만 가능하기 때문에, 생명이 신비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나타난 하나님 안에서 그 원천을 가지고 있다.

#### D. 사랑의 드러남과 규범으로서 진리 - 진리의 중심으로 사랑

신비를 퍼즐로, 경이함을 수수께끼로 대조한다면, 지식을 충분히 깊은 마음으로 본능적인 방법으로 알게 하는 일차원적 방법은 심각한 오해를 불러온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생명의 중심적 실재로서 신비에 호소하는 것은 진리의 견고함으로부터 도피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신비는 비이성적 모호한 세계로 날라 가는 것처럼 보이며 또 감정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듯하다. 주관주의와 상대주의가 환영 싸인 넘어 숨어 기다리며, 방심한 영혼을 손짓하여 신비라고 부르는 고백적 신학적 길로 떨어지게 한다." 신비는 값싼 감상으로 빠진 것 같을 것이다. 신비에 호소하는 것은 진리를 희생한다는 두려움은 이해 할만하다.<sup>5)</sup> 신비에 대한 의존은 사실 혼동에 대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 진리로부터 신비를 단절하는 것은 신비와 진리 두개를 훼손

5) One cannot help but wonder whether it is this fear that led to the reductionist rendering of the title of chapter two in the English translation of Berkouwer's volume on the sacraments. Whereas the title in the original is "Sacrament and Mystery," in the English translation "mystery" is transformed into an issue of quantity: "The Number of the Sacraments." Cf. *De Sakramenten* (Kampen: Kok, 1954), p. 29 and *The Sacraments*, p. 27. In this chapter, the issue of "number" plays a decidedly secondary role. As Berkouwer explicitly states that in the question of "numbers" the real issue at stake is "the nature of the sacraments," *ibid.* 32, 38.

시키는 것이다.

진리와 사랑은 신비의 방식이다. 진리와 사랑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의 신비와 창조주와 구속주의- 아버지, 아들, 성령- 면전 앞(코람테오)에서 삶의 신비의 양면이다. 특별히 우리의 문화 속에서 신비를 기초로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실상 신비에 대한 강조는 진리를 손에서 취하여 안전하게 보호한다. 진리가 우리를 붙잡는다. 우리는 지식에까지 넘치 것, 즉 사랑이란 진리라는 것을 안다(엡 3:19). 우리는 진리를 요구할 수 없고 진리가 우리를 요구한다.

그러나 진리는 신앙고백의 방식으로 말해질 수 있고, 또 말해질 필요가 있다. 기독교 공동체는 고백적 진리 없이 살수 없다. 진리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서는 살수 없다. 그런 고백적 형태는 언어적 논리적 분석에 의해 정정되어 질수 있다. 진리의 동사적 표현은 적절성을 위해 분석적으로 탐색될 수 있다. 교회 고백과 신학적 강론은 신비와 마주보는 진리에 정확성을 위하여 판단 받을 수 있으며 판단 받아야 한다.

진리와 신비의 연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나는 요한일서에서 나타난 것들을 볼 것이다. 이 서신은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불렸기 때문에 진리의 진술이 분명하게 없는 듯하게 보인다. 유일한 보고인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를 내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마침표이다! 누군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단순한 간단한 진술이 펜의 마침이다. 여기서 확신하는 바를 다소 과장된 방법으로 말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동일한 진술서 반복한다. (요일 4:7-16). 더군다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완벽한 대칭으로 요한복음과 이 서신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났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보편적 진술을 한다. 왜 그런가? 단순하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진리를 덮는 것으로 예상되는 성경은 요한 서신일 것이다. 그러나 이 서신서에서 발견 된 것만큼 진리의 고백에 강조하는 것은 생각되어질 수 없다. 요한은 순전히 거짓된 자들에게 진리로 대항했다. 그는 분명한 고백에 기초하여 진리와 거짓의 차이점 구분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이다.” 그런 부인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이것은 일종의 이원론적 대립이며 배타적 교조주의로서 나의 귀를 간지럽게 한다. 더군다나, 이런 강한 판단은 사랑에 대한 설명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진리에 대한 고백은 사랑에 대한 취소 못할 확고함과 충돌하는가? 매우 그렇지 않다. 요한에게 있어서 진리와 사랑은 한 조각으로 되어 있다. 참된 고백을 위해 부르심은 참된 사랑을 안전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순서를 도치하여도 동일하게 진실이다. “사랑하도록 부르심은 참된 고백을 안전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으로서 사랑에 관한 증언이 참된 고백으로 번역되지 않는다면, 사랑 그 자체는 위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서신서의 참된 고백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진술하는 것은 ”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 라고 뒤집어 질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최고가 된다. 이런 순간에 한 원리가 하나님의 위치를 찬탈한다.<sup>6)</sup> 진리뿐만 아니라 사랑은 인간을 구성하는 것이 된 것이다. 인간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꿈, 소원, 아이디어가 신비의 척도가 되었다.

요한에게 있어서 진리와 사랑은 신비가 신적인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의 환상에 종속되는 신비가 아니다. 그러므로 신비는 정해진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사랑을 일깨우는 요한서신은 애매한 일반적 개념을 단순히 확신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개념을 확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속에 투사하기를 중지하기 위하여 이 서신서는 즉시 지속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이이서, ” 이 안에 사랑이 있다. “ 그 말은 기술적인 정의가 아니라, 희생적 사랑(독생자를 보내심)의 묘사이며,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요, 외로움의 고뇌를, 증오의 독을, 고통의 공포를, 바른 입술 위에 피 맛을(속죄 희생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자) 아는 사랑이다. 이 나타난 신비의 모습은 피멍이 든 인간의 모습이다. 그 피 안에서 그 피를 통하여 요한이 주장하는 것은 이 사랑을 멈출 것을 아무것도 없으며, 이 신비를 무효화 시킬 것도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하여 그 목적에 이르기 때문이다(요일 4:7-5:12).<sup>7)</sup>

6) On this inversion of God and human yearnings or constructions, see Lesslie Newbigin,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Grand Rapids: Eerdmans, 1989), 146, 166, 170.

7) Not even the eschaton banishes mystery. We will see him not *per essentiam* (in essence) as the Vulgate has it but we will see him as he truly is (I John 3: 2), the visage of one who fully and unreservedly embodies love and truth as modes of mystery. It is striking that when Paul speaks of knowledge in the present, he compares it to seeing in a hazy mirror, or through opaque glass. One would expect that in contrast to the present haziness, Paul would describe future knowledge as laser light brilliance. Instead,

요한 서신의 이 간략한 설명이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 믿음 안에 있는 진리가 역할 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디로 인도 하는가 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이 고백과 증거를 말할 때 요한은 조직신학과 관련된 분명한 전치사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정상적 대화의 언어를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언어는 거짓으로부터 진리를 구별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을 끝까지 보는데, 요한이 말한 진리는 만일 절대적인 진리가 다른 종교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진리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절대적인 진리로 진술될 수 없다. 분명하게 요한은 그의 상황 안에서 그리고 그의 상황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였다. 만일 그 진리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요한이 말한 진리를 높여, 오늘날 이단들을 박멸하는 그것을 사용할 시도를 해야 한다. 이단들을 요한이 시험하는 것을 생각하라, “예수가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마다 적그리스도” 라고 한다, 오늘날 예수의 신분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그가 진정 육체적으로 진정한 사람이었는가 아닌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어떤 면에서 예수가 하나님으로 불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요한의 대적자들 뿐만 아니라 그도 믿는 것은 예수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며 신적존재라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계시가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로 되는 것이야 이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반대이다. 그러나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 자리에 있었던 예수를 진리로서 요한이 고백한 것은 우리에게 역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로 가는 창문이요 대문이다.

신비의 방식으로서 진리와 사랑을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진리와 사랑은 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삶의 다른 분야 혹은 다른 인간 기능들에 할당될 수 있는 실재라는 것이다. 진리는 이성적으로 아는 이론적 영역에 할당되었으며, 사랑은 도덕적 삶의 체험적 영역에 할당된 것이다. 성경적 진리와 사랑은 동일하지 않지만, 서로 겹쳐진다. 더 정확하게 한다면 진리와 사랑은 통합된 전체의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는 구약에서 성실함을 수반한다. 그것은 견고함을 제안한다. 진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기초를 제공하며 인간이 그를 의지하여 풍성한 관계를 허락하며 정의를 허락한다. 그러므로 진리는 하나님을 묘사한 특징에서 두드러진다. 모세를 지나가신 언약의 하나님은 선포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출 34:6).” 인자와 진실이라는 용어들은 충실한 사랑과 진리이다. 마지막 두 용어들은 요한이 예수의 오심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것으로 매우 유사하게 사용하였다. 그런 밀접한 관계된 용어들의 조합에 대한 용어를 증언법이라고 한다. 그것은 2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의 복잡한 개념을 표현한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실재성은 하나의 실재를 형성하며 풍성하게 다양한 용어들을 요구한다. 은혜와 진리와 혹은 사랑과 진리와 같은 이중어는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의 관계 속에서 그의 다면적인 경이로움을 선포한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의 이중적 개념은 하나님의 화해의 임재를 유일성과 풍성함을 표현한다.

그러나 진리와 사랑은 서로를 구별 없이 하나로서 묘사하는 충분한 것이 아니다. 진리라는 용어의 사용이 요한 서신에서는 비록 간단하였지만, 얼마나 다양하였는지는 흥미로운 것이다. 놀랍게도 요한에게 있어서 진리는 우리에게 단순히 외형적인 것이 아니다. 요한은 진리는 밖에 라는 X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요한이 저곳에 진리를 말하였다면, 진리는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의미이며, 우리가 진리에 있지 않고 거짓에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진리 밖에 살며 거짓으로 사는 것이다. 동시에 보통 상황이 우리 안에 진리를 가져야 한다고 할 때, 이것은 진리는 우리 안에서 있다는 오늘날 유행하는 개념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요한은 저 밖에 아니면 안에 라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진리는 우리에게 오는 실재라고 보았다. 사람이 진리의 영을 따르는지 아니면 거짓의 영을 따르는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사도의 교훈과 가르침을 주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요일 4:4:6). 이 약속은 우리에게 온다. 진리는 단순히 저 곳에 있다 아니면 이 안에 있다 식이 아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속죄 희생을 통하여 우리와 세상을 화해시킨 그 메시지에 있다. 요한에게 있어서 진리는 성령에 의하여 지금 임재하신 그 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화해하시는 임재이다. 결과적으로 요한이 성령은 진리시다(요일 5: 6)라고 선포할 때 이것은 진리의 세상적, 육체적, 혈육적 특징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 땅의 진리에 대한 증거로서 성령은 진리이시다 (요일 5: 6-12).

진리는 단순히 저 밖에 있다 아니면 여기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증언과

고백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증언은 진리의 매개에 강조점이 있고 반면에 고백은 정당한 진리의 표현에 강조점이 있다. 고백은 진리와 상관관계에 있으며, 그것은 진리에 대한 응답이며, 그것은 사랑으로 사는 삶 안에서 진리를 동화시키는 것이다. 사랑은 진리에 나오는 충만한 삶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사랑의 규범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한 진리이다. 요한이 간결한 문장으로 쓴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알거니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버림이 마땅하다.” 여기서 진리와 사랑이 서로 얽혀 있으며, 고백과 행위가 서로 얽혀 있음을 알 것이다.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로 사람들을 인도한다. 그 계시는 진리와 사랑이 하나로 있다. 위로부터 오는 진리를 고백하는 것은 사랑 안에 진리와 함께 사는 것이요, 사랑 안에 . . . 진리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와 사랑의 깨질 수 없는 전체성이다. 예수를 고백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으로 사는 것이다(요일 2:4; 4:20).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임재를 고백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 하는 자요,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는 자이다(요일 2:22; 5:10).

진리와 사랑은 단순히 우리 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으며,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특성과 행위에 언급된다. 왜냐하면 이 싸여진 실재는 기독교인의 실존의-실제로는 세상 실존의-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비이다. 그것은 알려지지 않아서 신비가 아니고, 알려졌기에 신비이며, 비밀이기 때문이 아니라,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의문사 때문이 아니라, 감탄 마크를 만들기 때문이다. 진리는 신비의 드러난 방식이라고 불릴 수 있다. 진리는 우리가 아는 것에, 우리가 말하는 것에, 우리가 감사 수락하는 것에 대해 신비를 오픈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믿음에 의하여 얻어진다. 그 이유 때문에 고백은 요한 서신에서 두드러져 있다. 호모로게우는 같은 것을 말하다 혹은 함께 말한다는 의미이다. 요한에서 이 용어는 아마도 둘 다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공동체란 그들이 시작부터 들은 바에 관하여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새로운 공동체는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다.

사랑에 관하여 그것은 신비의 열린 손이요 열린 마음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 주는 손과 마음이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자기 스스로 있지 않는다. 사랑은 진리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사람들이 단순히 끼워 자유롭게 뜨는 실재가 아니다. 사랑은 전적으로 진리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고 만들어 진다. 믿음이 진리로 우리를 연결하기 때문에 믿음은 사랑의 눈으로 묘사된다. 사랑은 살아있는 진리이다. 흥미롭게도 에베소 사람에 대한 권면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를 문자적으로 번역 하면 사랑 안에서 진실되며(믿음만하며 혹은 성실함)로 된다. 여기서 진리는 동사인데, 영어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한국어나 아시아 언어가 진리에 대한 비슷한 동사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분명히 사랑과 진리는 구별되지만 하나의 실재 가운데 부분이다. 확실히 그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시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다.

#### E. 고백과 신학에 의한 신비로서 진리

진리와 사랑의 본질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화해를 통하여 임재의 한 신비로서 교회의 고백들과 신학적 체계와 진술들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진리의 첫 순서 선언과 진리의 이차 순서 선언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다. 단순하지만 심오한 생명의 변화가 있는 고백은 “예수는 주님이시다”는 첫 순서의 선언이다. 그것은 우리의 전적인 삶의 나침판이다.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칼세돈 신조는 이차적 선언이다.<sup>8)</sup> 고도의 섬세한 철학적 분류와 구별을 사용함으로써 교회는 동시에 정통 믿음의 마음과 영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있어서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인간적으로 우리와 동일하신 것을 말하였다. 그는 두 프세인(phusein), 한 위격이시며, 두 본질과 한 인격으로 계신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첫 순서로 고백한 말에서 한 단계 물러 난 것이다.

신학적 성찰은 세 번째 논의가 된다. 신학은 첫 번째 선언과 두 번째 선언에서 전달된 통찰력을 이론적으로 투명하고 깊게 할 것을 추구하는 작업이다. 진리의 질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그리고 매일의 삶을 위한 그 의미

---

8) See Jeroslav Pelikan's discussion of the issues around these Christological statements, *The Christian Tradition: A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Doctrine, Vol. I: The Emergence of the Catholic Tradition (100-60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 256-77.

에서 창문으로 보여 질수 있다. 마침에 있어서 한 예를 들겠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요한의 고백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육과 피로 사랑으로 화해시키는 임재하신 놀라운 신비에 대한 아주 심오한 즐거운 증언이다. 칼세돈 신조는 인성과 신성을, 한 인격과 두 본질을 확고하게 주장한 것으로 요한이 증거 한 것에 대하여 보호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칼세돈 신조는 요한복음 1: 18을 개선하지 않고; 그 안에 고백된 신비를 설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 차선적 순서의 진술들은 창문보다도 덜 정적인 은유를- 첫 순서의 진술이 가리킨 신비의 주변에 있는 춤- 사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 개업자, 즉 신학자들의 역할이 어디에 있는가? 아마도 그들은 춤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자들일 것이다. 만일 그것이 너무 단조로우며, 아마도 신학자들은 춤을 위한 음악을 증폭하는 소리를 조정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신비의 개념이나 실재는 중요하게 남는다. 그러나 사람들의 신학적 탐구에 의하여 신비를 해명하려는 시도를 하자마자 신비를 침해하는 것이다. 신비를 존중함으로서 오직 올바르게 신학을 할 수 있으며, 신비는 우리의 인식 넘어선 열린 공개적 비밀로서, 신비에 붙잡히거나 아니며 신비를 사랑으로 감싸면서 우리는 살고, 기동하며, 존재한다.

**“신비의 방식으로 진리와 사랑의 조화”에 대한 논평**  
Response to “Reconciling Truth and Love—Modes of Mystery”

안 명준 (평택대학교 조교수, 조직, Ph.D.)  
Ahn, Myung-Jun (Assistant Professor, Pyongtaek University,  
Systematic Theology, Ph.D.)

“신비의 방식으로 진리와 사랑의 조화”라는 강의는 우리에게 신비의 방식으로 성경의 진리와 사랑이 다원 사회에 살고 있는 지식인들과 심지어 타종교인들까지도 설득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 준다.

Vandervelde 박사는 그의 논문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원주의적 세계관의 관점에 반대한다. 그는 5 항목에서 그의 요점을 논의한다. “신비: 보상, 도피, 그리고 진리의 고향”, “삶의 자료로서 신비”, “드러난 신비”, “사랑의 드러남과 표준으로 진리 - 진리의 중심을 사랑하라”, 그리고 “고백과 신학에 있는 신비로서 진리”. 일반적으로 나는 이 주제에 대하여 그와 전적으로 동의한다. 나는 그의 작품을 논평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한다. 나는 신비라는 중심 주제어를 사용하여 성경의 참다운 진리를 분명하게 말한 그의 공헌을 인정한다.

시작에서 그는 오늘날 진리가 여러 방향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한다. “종교 다원주의가 진리에 대해 의심을 일으킨다. 다원적 상황이 쉽게 다원주의적 세계관으로 이끈다. 그런 견해는 어떤 한 종교가 진리로 확신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며, 모든

종교들의 종합을 통하여 여러 종류의 진리를 찾는 것이며, 함께한 진리에 대한 개념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는 D. Wells가 복음주의 세계 안에서도 진리에 대한 도전에 염려한 것을 지적한다. 그는 생각하기를 복음주의 공동체는 진리에 관해 심하게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으로부터 그는 다음과 같이 강하게 제안한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많은 가치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고백은 우리의 전적인 삶을 재고하도록 요청한다.”

그는 신비의 방식으로서 진리와 사랑으로 제안한다. 첫 번째로 그는 보상, 도피, 진리의 고향으로 신비를 묘사한다. 비록 신비에 호소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치열한 전투로부터 도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우리가 전략적 후퇴로서 신비에 대한 카드를 뽑아야 한다고 한다.

그가 언급하는 것은 신비와 계시의 관계이다. “계시는 우리를 또 다른 영역으로 데리고 가는데,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세계이다. 이 영역은 교리와 교의의 세계를 초월하며, 명확하고 분명한 주장의 영역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 영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다. 그것은 신비의 영역이다.

그는 신비를 삶의 자료로 본다. “신비란 우리 뒤에 놓여 있으며, 우리 앞에 있으며 사랑의 소리로 부름으로써 우리 주변에 있다. 신비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삶의 조건이다. 신비는 우리를 둘러싸며, 우리를 감싸며, 우리 생물권이며, 우리의 생명 호흡이다.”

그는 또한 신비는 풍부하게 성경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계시된 것은 신비이다. 신비는 알려진다, 신비는 설교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축하받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지적하기를 바울조차도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한다고 한다(엡 3:4, 6:19; 골 1:27, 2:2; 4:3).

그는 진리를 사랑의 드러남이요 법으로 여긴다. 신비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삶의 중심적 실재이다. “진리와 사랑은 신비의 방식이다. 진리와 사랑은 이 세상에서 삶의 신비의 양면이며, 코람데오이며, 창조주와 구속주: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의 면전에서 삶이다.” 요한의 말에 근거하여 그는 말하기를 “진리와 사랑은 인간의 환상에 종속되는 신비들이 아닌 것은 신비가 신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여기는 그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다. 진리와 사랑을 신비의 방식으로 말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는 진리와 사랑은 두개의 전적으로 분리되는 실재가 아니라, 말할 것도 없이 그

것은 삶의 다른 영역 또는 다른 인간 기능들에 부여된 실재인데, 진리는 이성적인 앎의 이론적 영역에, 사랑은 도덕적 삶의 체험적 영역에 부여된 것이다. 성경적으로 진리와 사랑은 비록 동일하지는 않지만, 서로 중복된다. 더욱 정확하게 말한다면, 진리와 사랑은 전체들 가운데 부분이다. “

그는 진리는 단순히 저 밖에 혹은 이 안에 있다 라고 정의하지 않으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우리와 세상을 화해시킨 멧세지에 있다 라고 정의한다. “요한에 있어서 진리란 성령에 의해 지금 임재하는 분 즉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화해하는 임재이다. 결과적으로 요한이 성령은 진리라고 선포했을 때(요일 5:6) 이것은 결코 진리의 지상적 육신과 피의 특징을 희석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예수의 지상적 진리에 대한 증거로서 성령은 진리이다(요일 5:6-12)” 그는 말하기를 “진리는 신비의 드러난 방식이라고 한다. 진리는 신비를 열어 우리로 알게하고, 말하게 하고, 감사의 삶에 들어가게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에 의해 받아들인다.”

그는 진리의 관점에서 사랑의 개념을 정의한다. “사랑에 관하여, 사랑이란 신비의 열린 손이며 열린 마음이다. 열린 손과 마음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사랑 그 자체의 소유가 아니다, 진리로부터 떨어질 수도 없다. 사랑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빠져 자유롭게 떠다는 실재가 아니다, 사랑은 진리에 의해 전적으로 인도함을 받고 형성되어야 한다. 믿음이 진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믿음은 사랑의 눈으로 묘사된다. 사랑은 살아있는 진리이다. 구별이 되지만 분명하게 사랑과 진리는 한 실재의 부분들이다. 분명하게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진리는 고백과 신학 안에서 신비로 여긴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알기를 바란다. “사람이 자신의 신학적 탐구를 통하여 신비를 밝히려고 시도하는 순간, 신비를 파괴한다고 한다.”

비록 이 논문은 우리에게 많은 우수한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첫 째로 비록 그가 신비의 방식으로서 진리와 사랑의 화해에 강조가 큰 공헌을 했지만, 그의 글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는 글의 목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몇 권의 책만

을 인용하였다. 나는 그가 만일 다른 학자들의 참고 문헌을 사용했더라면 그의 논문은 더욱더 강하게 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신비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그는 단순히 신비의 의미를 설명하고, 동의어를- 비밀, 희미함, 불명료함, 애매함, 모호함- 설명하는 것이었다. 비록 그는 신비란 우리의 정상적 세상을 넘어 있는 세계이며, 종교와 영적인 세계로 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전체 성경의 관점에서 신비에 대한 참된 정의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세 번째로 이 글의 진정한 목적을 찾기가 힘들다. 첫 부분에서도 요점을 알기가 힘들다. 그렇게 되어서 나는 그의 결론도 모르겠다.

비록 나의 부족한 평가를 통하여 몇 가지를 언급했지만 그의 글은 복음주의 신학의 관점으로부터 복음의 진리와 사랑을 확신하는데 우수하며 신선한 공헌을 하였다.

한국복음주의 신학회에서 이 주제로 발표하신 Vandervelde 박사님에게 감사를 표한다.

## “신비의 양태로서 진리와 사랑의 조화”에 대한 논평

### Response to “Reconciling Truth and Love—Modes of Mystery”

정 남수 (그리스도대학교 부교수, 조직신학, Ph.D.)  
Chung, Nam-Soo (Associate Professor, Korea Christain University,  
Systematic Theology, Ph.D.)

#### 중요 용어들:

- 다원주의 상황, 신비, 진리, 사랑 - 신비의 양태들
- [21세기를 위한] 신학적 반성 [의 필요성]

#### 중요 성서구절들:

- 엡 3:4; 골 1:27,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신비”
- 요1서 1:1-2, “생명의 말씀”
- 엡 4:14,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G. Vandervelde 교수의 “신비의 양태로서 진리와 사랑의 조화”라는 글을 읽으면서, 오늘날 각양각색으로 이해되고 있는 주관적 진리의 개념의 위험성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된다. Vandervelde 교수는 신비의 양태로서 진리와 사랑을 기술하면서 이 같은 진리의 주관적 이해의 위험성을 현대 신학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기독교에서 진리는 명료하게 표명되어야지, 감추어지거나 혹은 변명되거나 혹은 주관적인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리와 사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나 신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로써 신비의 양태를 띤다. 하여 누구도 자신의 취향에 따라

그 신비를 발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신적 본질 때문에, 신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와 관련하여 발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나할 것 없이, 누구도 자신의 취향에 따라 진리를 소유할 수 없다. Vandervelde교수는 진리와 사랑의 정확한 의미를 혼동하지 않기 위하여, 먼저 일반인들이 어떻게 “신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가를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신비가 왜 알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요한 1서를 가지고 검토한다. 요한1서에 의하면 신비란 계시된 것이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진리와 사랑의 계시를 통하여 분명하게 알려졌다.

Vandervelde교수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원주의적 상황”을 기술함으로서 자신의 논지를 전개한다. 저자는 오늘날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주관적 경향 때문에 진리에 대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은 그 같은 위협이 기독교 안에도 존재한다. 따라서 어느 누가 자신은 “자신만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자신만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참다운 진리를 발견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저자는 자신이 왜 이 같은 paper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기 위하여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원주의적 상황”에 대하여 주의를 주고 있다. 그는 사랑과 진리가 비록 신비의 두 양태이지만 그것은 보다 분명하게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진술함으로서, 진리에 대한 주관적 이해를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신비란 결코 밝혀질 수 없다는 핑계를 쉽게 댄으로서 진리 혹은 진리에 대한 탐구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신비를 설명하기 위하여 신비를 수수께끼(riddles) 혹은 퍼즐(puzzles)이라는 용어와 비교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곧잘 하나의 수수께끼처럼 신비를 정의하려고 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혹은 하나의 범주로 만들어 이해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경향이 있다. 허나 우리는 여기서 그 같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같은 방식으로는 신비를 더 이상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사람들은 진리를 해명하려는 것을 신비로 이해함으로서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하면 이것이 곧 신비이다. 고로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 구상할 것이 없다고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흔히 참(진리)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때로 그

스스로 당황하거나 혼란스럽거나, 혹은 불분명할 때 그것을 신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행태를 우리는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수용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비와 진리의 개념을 희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진리에 대한 해명이 어렵다고 하여 진리를 해명하려는 작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사랑이 신비와 관련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충분히 설명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저자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what love is)를 기술하고, 살펴보고, 설명하려고하는 노력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진리는 신앙 고백적 형태에서 명료하게 설명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필요가 있다.” 라고(p. 13).

Vandervelde교수는 신비의 한 양태로서 사랑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요한 1서를 먼저 주목한다. 요한은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한다(p. 14). 저자는 사랑과 진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사랑은 신비의 한 양태로서 설명되고 있다. 하여 진리와 신비는 함께 공유/공존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참다운 진리가 곧 신비이다.

진리와 사랑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서로 다르게 반영된 신비의 양태들이다. 하여 진리와 사랑은 서로 공유한다. 이는 당신의 백성들과 세상과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차이 또한 있다. 진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드림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한 구체적인 실재(현실)로 드러난다. 사랑은 진리의 완성이다(Love is the fulfillment of truth).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줌으로서 그 진리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기 때문이다.

저자의 논지는 그의 논문의 18쪽의 마지막 구절에서 보다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다: “Because both truth and love refer to realities that are not simply beyond us, but around us, and refer to the unfathomable character and action of God in Christ, through the Holy Spirit, because this enveloping reality is the life-breath of Christian existence – actually of the existence of the world! – it is mystery.” 사람들은 흔히 사랑과 진리를 신비의 개념(영역)으로 진술함으로써 실은 그 사랑과 진리에 대해 알아보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흔히 자신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신비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신비는 진리(참)가 아니다. 신비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 신

비란 오히려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바로 주목함으로서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신비는 사랑과 진리의 드러남이다. 이로써 우리는 신비의 그 실체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으며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표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과 진리는 신비의 양태이기 때문이다. 사랑과 진리를 신비의 양태로 구성하는 것은 그것들이 비록 서로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에게 단단히 묶여있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랑과 진리를 어떤 형식으로도 기술할 때 하나님은 결코 무시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를 기술하고 정의할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를 신비의 [존재의] 양태로 구성시킨다.

Valdervelde 교수의 논문은 오늘날 진리를 자신의 취향에 맞게 주관적으로 범주화하려는 위험 가운데 있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또한 이 논문은 사랑과 진리의 개념이 왜(why) 신비의 양태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Valdervelde교수가 좀 더 명료하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우리는 그의 글을 이해하는데 용이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지면에 관계상 그랬을 것이다).

그는 전술한 것처럼 먼저 수수께끼 개념과 신비라는 개념을 비교하고, 다름으로 성서적 용어들을 사용하여 신비를 정의해 나간다(예,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 그의 글의 끝에 가서야 우리는 보다 분명하게 그가 기술하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신비와 성서적 신비의 개념이 정의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다. 만일 저자가 자신의 글의 말미에서가 아니라, 초두에서 그 같은 개념의 차이를 비교하고 설명하였더라면 독자들은 좀 더 쉽게 그의 글을 따라 갈 수 있지 않았나 싶다.

하여, 우리는 그가 “신비는 생명이다”, 신비는 우리이며 세상이다 와 같이 그 신비의 정의를 요약할 때까지는 쉽게 그가 말하는 신비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 허나 우리는 생명과 이 세상의 현상만을 통해서만 신비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 없다. 오히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이 세상의 창조자를 인식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저자가 처음부터 신비에 대한 자신의 정의를 밝혔더라면 그의 글을 좀 더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었을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다원주의적 상황”으로 언급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현실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신앙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다원주의적 상황” 으로부터 물러나서 살아가려는 어떤 단체들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또한 우리는 신학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다원주의적 상황” 을 어떻게 처리해 가면서 살 수 있는가? 저자가 자신이 경험했던 일련의 예화들을 넘어서서 “다원주의적 상황 ” 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였다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체적으로, Valdervelde교수는 우리에게 신비의 양태로서의 사랑과 진리에 대한 훌륭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그 신비의 양태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참되며, 열려 있으며, 공개적인 비밀이기도 하다. 그가 사랑과 진리 그리고 신비의 개념을 바로 이해시키기 위하여 요한 1서를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논문은 또한 오늘날 신학자들에게 신비를 명확하게 해명하고 그에 따른 진리와 사랑의 정의를 밝혀준다. 언뜻 그는 자신의 글에서 지속적으로 진리, 사랑, 그리고 신비의 양태라는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독일의 조정신학자 중 한 사람인 I. 도너(1809-1884)의 “윤리적 삼위일체” 체계의 인상을 풍긴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그가 자신의 글에서 21세기를 위한 신학적 반성을 구성하면서 은유(예, “창” , “춤” ), 상상력, 이야기, 시적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여 우리는 그의 글을 읽어가면서 어떤 언덕을, 어떤 골짜기를, 어떤 고지를, 그리고 어떤 평지를 지나서 신비의 양태로서의 진리와 사랑의 아름다운 강으로 여행하는 듯싶다.

질문들:

1. 이 글의 전제로서 5쪽에서 “시련아래 있는 진리” 의 상황이라고 했는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 경우가 없을 때가 있었는가? 이것만이 꼭 후-현대주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역사 속에서 기독교 진리가 직면했던 그 “시련” 과 “후-현대주의 상황” 은 어떻게 다른가?
2. 후-현대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의 공동체의 진리를 보호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3. 특히 아시아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의 다양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